
외솔 최현배의 사상 형성과 그 실천

—학문과 우리 말글 문화 정책—

김석득 ·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역사를 이해한다는 뜻은, 역사 흐름의 한 선 위에 있는 현재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창조의 이상을 세우는 데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 겨레와 나라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외솔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한 그 사상이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대저 그때를 산 여러 선각들의 한결같은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는 상징의 뜻도 함께 한다.

외솔은 한 삶에 주어진 그때그때의 환경에 따라 여러 사상서를 펴냈다. 그 가운데 특히 두 개의 큰 사상서가 꼽힌다. 왜정 저항기에는 죽어 가는 겨레가 되살아날 수 있는 길(생물을 넘는 생기 찬 살음)을 열어 준 《조선 민족 갱생의 도》를 지었고, 광복 뒤에는 이 길을 잃은 나라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나라 사랑의 길》을 지었음이 그것이다. 사상의 속뜻(겨레 나라 사랑)으로 보면 뒤의 것은 앞 것의 연속선 위에 놓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한 삶을 지배하는 사상의 형성은 일찍이 어릴 적부터 싹트고, 주시경 선생의 말글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서 굳게 자리 잡아 자랐으며, 고등 교육 시절에 정착·강화된다.

그리고 그 사상은 겨레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실천되어 실하게 열매 맺는다. 다시 말하면, 조선어학회 수난을 역사의 축으로 볼 때, 그 수난 때까지는 죽어 가는 겨레 열과 말을 살리기 위한 창의를 실천이요, 그 뒤는 살아난 겨레 열과 말을 퍼 나가기 위한 창의를 실천으로 나타난다.

1. 사상 깨달음 시기

1.1. ‘서당 교육’의 시대—비과학적 교육의 비판과 새 교육의 길을 깨달음

외솔 사상의 형성 과정은 ‘깨달음의 시기’와 ‘정착 강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깨달음의 시기를 본다. 이 시기야말로 외솔 삶의 전환점을 이룬다.

외솔은 1899년부터 1907년까지 서당에서 한문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싹이 튼다. 이것은 외솔의 회고의 글에서 명시된다.

“말글이 밖의 자연계와 안의 관념계가 아무런 관계없다. 오히려 그것은 창의력, 독립성, 자주심을 저해할 뿐이었다.”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 《사상계》 1955년 6월 호)

이러한 깨달음과 학문의 비판 의식은 새 교육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가 된다.

1.2. '새 교육'의 시대

1.2.1. 초등학교(일신학교, 현 병영초등학교) 교육 시절

-나라 사랑의 싹 트임과 학문 연구의 근본을 깨침

외솔은 열네 살 되던 해 새 교육 기관인 일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동안(1907~1910) 새 교육을 받았다. 외솔은 이 시절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오적칠적을 타도하는 기사와 사설을 읽고 목 놓아 울기를 밤 깊이 하였다 한다. 외솔의 나라 사랑의 싹은 이때 이미 트인 것이다. 외솔은 이 새 교육 과정에서 산수 과목과 그 분석법을 좋아했으며, 수리와 논리적 사고 방법에 매우 흥미를 가졌다. 이를 외솔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이 산술 공부에서 수리와 논리적 사고의 방법을 익혀 나의 공부하는 태도와 방법을 세웠다 …… 여기에서 일생의 학문 연구의 근본을 닦은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 《사상계》 1955년 6월 호)

1.2.2. 고보 시절 특히 (국어)강습소, 조선어 강습원 시절

-말을 겨레의 세계상으로 인식하는 민족주의 언어관, 말의 창조 능력, 겨레 나라 사랑의 길 접힘

일신학교를 마친 뒤 한성고등보통학교(곧 경성고등보통학교로 바뀌었음)에 입학(1910. 4.)했다. 그러나 이때는 일본의 야욕이 노출되어 있었던 터라 뜻있는 학자들이 우리 말글의 연구와 보급에 심혈을 기울일 때다. 외솔은 이때 고보 교육을 받으면서 나라 잃은 울분을 안고 특히 주시경 선생의 강습소 교육을 함께 받는다. 이 강습소(상동청년학원 안

에 열고 그 뒤 보성학교로 옮김)는 1908년 3월 31일에 창립된 ‘국어연구학회’가 연 1년 과정의 국어 교육 강습소이다. 외솔은 주시경 선생에게서 배운 이 강습소 2회 졸업생(1910. 10.~1911. 6. 27.)이다. 국어연구학회는 ‘국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회 이름을 ‘배달말글모음’(1911. 9. 17. 《한글모죽보기》의 ‘연혁’에 따름. ‘회록’에는 9. 3.)으로 고치고, ‘강습소’를 ‘조선어 강습원’으로 바꾸면서 초등, 중등, 고등과를 둔다. 외솔은 이 조선어 강습원의 중등과 1회 수업을 이수하고(1911. 9. 17.~1912. 3. 1.) 고등과 1회 졸업을 한다(1912. 3.~1913. 3. 2.).

외솔은 따라서 주시경 선생에게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셈이다. 이 시기에 외솔의 겨레 사상은 여물어갔다. 외솔의 다음 말은 이를 짐작케 한다.

“주 스승에게서 한글을 배웠을 뿐 아니라 우리말 우리글에 사랑과 그 연구의 취미를 길렀으며, 겨레 정신의 깊은 자각을 얻었으니 나의 그 뒤 일생의 근본 방향은 여기서 결정된 것이다.” (위에 든 글에서)

외솔의 한 삶의 근본 방향을 결정토록 한 것은 무엇이며, 겨레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의 오르고 내림을 나라의 오르고 내림과 상관관계로 본’(《보증 침묵 회보》 1, 1910. 6. 1.), 또한 ‘한 나라의 성하고 쇠함이나 있고 없음을 말의 그것과의 함수 관계로 본’(《국어 문법》 ‘서’, 1910) 주시경 선생의 언어관을 깨친 것이요, 또한 ‘말은 나라 독립의 성’(정신, 열)으로 판단한(위에 든 책에서) 주시경 선생의 ‘말-글-열 일체’의 민족 언어관을 깨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겨레 열을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우리말을 창안할 수 있다는 능력의 실증(주시경 선생의 고유한 새말 만들기)을 그때 그대로 외솔은 깨쳤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시기의 외솔의 사상의 깨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말은 겨레의 세계상임을 인식하는 외솔이 민족 언어관과,

말의 창조 능력(말의 힘)을 깨치고, 말글의 사랑과 연구를 통한 나라 사랑의 길을 분명하게 잡은 때이다.

참고 1: 주시경의 언어관이나 외솔의 그것은, 언어 철학자 훔볼트(1767~1835)의 다음의 언어관과 같다. “언어의 차이는 그 안에 새겨진 세계관 그 자체의 차이이다.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적인 외적 표현이다. 언어는 다만 이루어져 있는 것(에르곤, ergon)이 아니라 지어내는 힘 곧 생성 창조 활동을 이어가는 있음(에네르게이아, energiea, 말의 힘)이다.” (글쓴이 1983:13/2009:22)

참고 2: 외솔이 다니던 강습소와 조선어 강습원의 때(1910~1913)는 주시경의 《국어 문법》이 펴 나온 때이다. 따라서 그 책의 ‘서’ 안에서 밝힌 “세종께서 천종의 대성으로 국어 문자를 친제하심”과, 같은 책 ‘국문의 소리’의 어학사에 해당하는 대문에서 밝힌 “훈민정음의 세종 어제 서문과 본문”들은 아마도 그때 제자들이 세종의 자주 민족 언어 관과 창조주의 사상을 인식하는 데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사상 정착 강화 시기

—고등 교육 시절, 민족주의 줄기 사상의 정착 강화

외솔은 고등 교육 과정(히로시마고등사범 1915~1919, 교토대학 1922~1925, 그 대학원 1925~1926)을 거치면서, 왜정의 압제 정치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겨레의 확고한 정체성과 겨레 의식을 정착·강화한다. 이것은 대학원을 마치면서 지은 《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서 확인된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정복자의 압제 정치 아래에서 목숨을 살면서 공부를 하자니 압박과 설움, 수치와 통분 속에서, 현재를 견디며

장래를 근심하기에 남모르는 마음의 고통은 끊임 없이 없었다. 살기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공부하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조선 민족 갱생의 도》 ‘머리말’ 중에서)

“아모(무)리 생각해도 나는 조선 사람이다. 세계는 넓건마는 조선만이 내 땅이다. 삼천리강산 우(위)에 곳곳마다 피땀 흔적, 사천년 역사 속에 일일마다 사랑 자곡(국), 이 강산 이 역사를 잇고 이어 다시 이어, 이천만 이억만이 영키영키 살아 보세.”(《조선 민족 갱생의 도》 ‘끝맺는 말’ 끝 쪽에서)

이것은 외솔이 고등 교육을 받는 과정(시기)에서 늘 마음속에 사무치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대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결국 겨레와 나라 사랑의 민족주의 줄기 사상을 확고하게 정착 강화한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사상은 그 사상의 실천 철학으로 체계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상적 확고한 심정의 글이 대학원을 거치면서 나오기에 앞서 외솔은 교토대학 철학과의 교육학 전공 논문 ‘페스타로치의 교육 학설’(1925)을 발표한다. 대학의 논문과 대학원의 논문 ‘조선 민족 갱생의 도’(1926) 사이에 시차는 있다. 곧 앞의 것은 결국 외솔의 ‘교육 철학의 체계’ 확립이요, 뒤의 것은 우리 겨레의 삶의 실천 강령임과 아울러 외솔 스스로의 실천 강령이기도 하다. 민족을 구하는 길이 교육에 있음을 확신하는 외솔은 그러므로 조선 민족 갱생의 잠재의식을 가지고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교육 철학에 관한 글을 쓴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제 이들은 속살을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21. 교육 철학의 체계 확립—페스타로치의 설을 새긴(소화한) ‘교육 철학’

외솔은 교토대학 철학과에 입학한다. “민족을 구하는 길은 교육이다.” 이는 외솔 교육관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밝힌다. 처음에는 사회학이 전공이었으나, 민족 개조와 사회 개량의 근본책이 교육에 있음을 알고, 철학, 윤리학, 사회학, 심리학을 배우고 언어학을 부전공으로 삼으면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졸업 논문으로는 ‘페스타로치의 교육 학설’을 썼다. 이 주안점은 “교육의 본질”은, 사람의 개성과, 인식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맞춤으로써, 사람의 본원의 창조적 힘의 개발과 도덕적인 힘을 기르되, 이를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마당은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 곧 학교나 사회가 바로 자연스러운 교육의 마당이라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모든 능력과 소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에 있다.”(외솔은 실제로 억압을 당하던 1926년에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임하였을 때 우리말 강의를 못하게 하였음에도 겨레의 이성에 호소하고 창조 능력을 개발하는 우리말 교육을 과외 과목으로 밀고 나아갔다. 광복 뒤에는 대학 입시에서 무시험 내신제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실천한 바 있다. 또한 외솔의 가르침의 고장은 교단뿐 아니라 교단 외적인 마당, 곧 학생과 마주치는 그곳이 바로 교육의 마당이었다.)

2.2. 겨레 삶의 실천 강령 체계 확립—《조선 민족 갱생의 도》의 ‘살음(생)철학’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수치와 통분 속에서 이를 견디면서 겨레를 되살려 보겠다는 것, 이것이 《조선 민족 갱생의 도》(논문:1926, 책:1930, 1971)의 동기요 목적이다. 그리하여 먼저, 심리 정신 병리학의 분석을 통하여 민족이 중병과 쇠약증에 걸린 환자임을 진단한다(1971년판의 책:18~43). 이 중병과 쇠약증의 원인(1971년판의 책:44~101)은 완고 불치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병의 뿌리는 아직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번 좋은 의사를 얻으면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으로, 치유의 근본 원리로 겨레 생

명의 큰 길을 여는 ‘살음(생)철학’을 세운다. 그 뜻의 핵심은 이러하다. “우주 만상은 다 활동 중의 만상이다. …… 모든 만물은 모두 활동하고 항구한 진화 진행 중에 있다. …… 이러한 살음의 작용이 영귀한(가장 거룩하고 귀한)것이 곧 우리 인생이다.” (《조선 민족 갱생의 도》 ‘서언’)

이 철학의 근본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가. 정신은 물질보다 윗자리에 둔다.
- 나. 끊임없는 새로움의 창조 활동을 한다.
- 다. 민족적 삶의 생기와 높은 이상을 세운다.
- 라. 우리 민족의 특질, 곧 ‘지-정-의’의 탁월함을 고증한다.

그리고 겨레를 되살리는 기본 방법으로 외솔 자신은,

- 가. 민족 언어관(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적 산물)을 확고히 한다.
- 나. 위의 언어관을 배경으로 우리 말글 연구와 교육, 정리, 보급의 실천을 꾀한다.

3. 사상의 실천

3.1. 광복 전(조선어학회 수난까지)

3.1.1. 민족 언어관, 생물을 넘는(초생물) 생기 찬 언어관 바탕의 민족 학문관 실천

외솔의 사상의 실천은 ‘광복 전’과 ‘광복 뒤’로 이루어진다. 광복 전의 일제 저항기에 있어, ‘민족 언어관’은 구체적으로 ‘민족 학문관’으로 나타난다. 또한 ‘생물을 넘는(초생물) 언어관’—생물의 죽음은 곧 죽음

을 뜻하지만 말의 생명은 겉으로는 한때 죽어도 속으로 살아 있다가 민족정신의 생기가 충족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언어관(문리 음향학 과정인 걸말 파롤(parole)은 어떤 까닭으로 한때 죽어도 뇌의 기본적인 심리적 속뜻의 속말 랑그(langue)는 살아 있다가 걸말을 되살려 낸다는)은 이 또한 민족 학문으로 승화한다. 외솔의 민족 학문관은 이 두 언어관(민족 언어관, 생기 찬 언어관)에서 말미암는다(학문뿐 아니라 말글의 교육, 말글의 정책에서도 이 두 언어관이 적용된다.).

학문은 다만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나라와 겨레를 위한 학문
이러야 한다.(민족 언어관을 바탕으로 한 민족 학문관)

생물의 죽음은 곧 죽음이지만, 말의 생명은 한때 겉으로는 죽지만
속뜻으로는 살아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
어관을 바탕으로 한 민족 학문관)

‘생물을 넘는 언어관’이란 용어는 외솔이 직접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솔은 우리말이 침략자의 언어 말살 정책이라는 정치적인 억압의 원인(말이 죽어 가는 원인에는, [1] 말할 이 모두의 소멸이나 자연재해, 대량 학살 등의 ‘물리적인 원인’, [2] 강한 경제 활동의 압력이나 지배 언어와 피지배 언어의 계급성, 전통 활동의 폐기 등의 ‘경제 사회적인 원인’, [3] 국가의 극단적인 다언어주의나 국제적 언어제국주의, 침략자의 언어 말살 정책 등의 ‘정치적인 원인’ 등이 있다(아제주 2000))으로 죽음에 이르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말글의 미래의 이상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였다. 이 이상의 실천은 ‘생물을 넘는 언어관에 말미암는다. 외솔이 한 삶에서 끼친 큰 학문의 업적은 그 이상의 실천이다(외솔의 학문은 올해 《외솔 전집》1차분으로 28권의 책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4. 30.). 다음은 그 주요한 것의 몇 개이다.

외솔은 우리 말글이 소멸에 직면하는 지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정신 안에 내재하는 속말의 법칙과 겨레 문화 창조의 역사적 이상을 지키는 《우리말본》(1937)을 펴냈다.

《우리말본》은 1929년에 그 첫째 매(소리갈)가 나오고, 1930년에 '조선어 품사 분류론'이 나왔으며, 1935년에는 그 온 책이 완성되어 1937년에 펴냈다. 이 책이 나오는 앞뒤의 우리나라 안은 우리 말글 말살에 맞서 그 연구 보급 정리에 비상이 걸렸을 때다. 이때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의 하나가 통일된 사전의 편찬이다(이는 뒤에 조선어학회 사건의 한 빌미가 됨).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 전제가 통일된 말의 본이다. 외솔의 말본은 외솔이 유학할 때 부전공으로 한 언어학의 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논리학과 심리학 그리고 경험주의 철학을 융합한 상승적 효과를 거둔 '준종합주의' 체계이다. 주시경 선생 이후 형성되는 세 큰 말본 체계의 하나다. 사전 처리에서의 논전(표음·표의 주의도 함께)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논전은 완성된 말본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상승적 효과를 거둔다는 융합의 원리 면에서 역사적이고 긍정적이다.

《한글갈》(1942)을 본다. 이는 외솔이 1938년에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한 석 달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풀려났으나 연희전문학교 교수직에서 강제 사직 당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선각의 문화 역사적 업적을 체계화 해 놓아야, 훗날에 후학들이 이를 계승승하리라”라는 비상한 각오로 지은 것이다. 1940년에 완성하고 1942년에 펴낸 것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기 얼마 전의 일이다. 이는, 외솔은 속마음으로 '생물을 넘는 언어관'을 품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보기로, 《한글갈》 초판 '머리말'에 내포한 속뜻을 보면, 거기에는 외솔의 '생물을 넘는(초생물) 언어관(또는 생기론의 언어관', '말의 자연순환관'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본다: “한글은 조선 사람의 지적 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인 동시에, 또 지적 탐구의 가장 긴밀한 대상이

아니면 안 된다. …… [다음은 왜정 아래 출판 허가 신청에서 켜인 것임] …… 해가 남회귀선에서 돌아와서 한 양기를 던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인왕산 아래 커다란 은행나무 천만가지가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그러나 끝끝이 푸른빛을 먹음은 듯한 저문 빛(모색)을 바라보면서.” 곧 이는 ‘자연의 순환 법칙’을 빌려, 어떠한 악조건 아래서도 정신과 마음가짐에 따라 살아남은 ‘속말’(랑그)은 시들어간 ‘겉말(파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외솔의 ‘생물을 넘는 언어관’(또는 생기론의 언어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외솔은 《한글갈》을 다 짓고 “나는 나의 생명의 대가가 이 세상에 남게 된 것을 보고, 스스로 위안을 느꼈다.”라고 했다. 이 책이 나온 지 넉 달 뒤인 10월 1일 외솔은 동지와 함께 조선어학회 수난의 길을 걷는다. 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어관을 믿었기에 외솔은 족쇄를 차고서도 위안을 얻었던 것이다.

또 다른 보기를 든다. ‘글자의 혁명적 옥중 연구’가 그것이다. 오늘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혹독한 감옥살이 안에서 우리 말글의 과학적 이상을 세우기 위하여 30년 전부터 착수한 글자의 혁명 연구에 골몰했던 일, 그리고 생명 보존이 가능한 청년 안(安)과 서(徐)에게 이를 옥중에서 가르치던 일(‘나의 인생과 나의 학문’, 《현대문학》 1965년 7월 호) 들은 이 또한 외솔의 그러한 언어관에 바탕을 둔 학문관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 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어관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 학문관은 겨레말의 죽음을 막는 피나는 연구 노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죽어 가는 겨레말의 죽음을 막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그 속말은 겉말과 함께 다 같이 아주 속절없이 죽고 마는 무기물이 된다는 것을 외솔은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이 옥중 연구 안은 광복 뒤 《글자의 혁명》(1947)으로 나온다(오늘날도 특히 심한 국제적인 언어제국주의로 말미암아 여러 겨레말이 죽어 가고 아울러 인류 문화가 소멸해감을 바로 보고, 이에 대한 걱정의 글이 문화인류학적 면에서 무겁게

다루고 있음을 주시한다.

텍스트프레스: L'EXPRESS, no.3169, 2012. 3. 28.~4. 3., 내셔널 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 2012. 7월 호. 말의 죽어 감을 막고 살리기에 대해서는 아제주(Hagège)의 앞에 든 책이 참고 된다).

3.1.2. 겨레 문화 발전을 위하여, 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어관에 바탕을 둔 말글 정책의 실천

‘말 글 얼 일체’의 민족 언어관과 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어관의 신념 아래 이루어지는 말글의 정리나 보급들의 언어 정책은 겨레가 되살아나는 길을 밝힌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의 필연적인 실천 이상이다. 이 이상의 실천은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의 맞춤법 정리,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 제정, 그리고 사전 만들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기로 나타난다. 저항기의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외솔은 먼저 민족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검거된다(석 달의 옥살이). 이른바 흥업구락부 수난(1938)이다. 그리고 우리말 정리 보급에 열중한 이들과 함께 조선어학회 수난(1942~1945)을 겪는다. 《조선 민족 갱생의 도》는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 종결 결정문’에서 그 실천의 목적으로 저술된 독립운동의 죄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실로 말의 힘, 말의 얼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선각들의 민족 언어관과 이를 잘 인지하는 왜정과의 맞부닥뜨림에서 빚어진 큰 수난 사건이었다(애산학회(2006), 《애산학보》 32를 볼 것).

3.2. 광복 뒤(조선어학회 수난 뒤)

3.2.1. ‘묵은 도덕’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새 도덕론’을 세움

외솔은 말한다. “세계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국민의 충만한 생기와,

굳센 도의심과, 왕성한 창의력에 달려 있다. 그러하건만 광복 뒤 국난의 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국민의 도의심은 무너져 가는 현실이다. 이 도의심을 잘 잡아 북돋우지 아니하면 나라의 앞길은 캄캄함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여기에 외솔은 나라 사랑의 충정에서 새로운 도덕론을 세운다. 그것은, 유교 사상에서 온 ‘묵은 도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뜻, 자유와 평등의 올바른 뜻에 맞는 ‘새 도덕론’(12가지 덕: 부지런히 일하기, 스스로 서기, 협력하기, 책임 다하기, 민중의 사랑과 섬기기, 너그러움, 평화, 규율, 공명, 정직, 창의, 소망)을 확립한 것이 그것이다. (《민주주의와 국민 도덕》, 1953) 외솔은 그때의 도덕의 타락 현상 앞에서, ‘쉽 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상’의 힘으로 이 ‘새로운 도덕론’을 세워, 널리 학교 교육에 이바지한 것이다. 참된 사람을 상징하는 외솔의 다음의 격언은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다.” “네 자신을 알라.”

3.2.2. ‘나라 사랑의 길’을 밝힘

외솔에게 비친 광복이 된 뒤의 사회상은 온통 모순덩어리였다. 그 사회를 외솔은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서 표방한 생기는 없어지고, 애국자는 많으나 나라 일은 글러져 가고, 진실과 선행은 발붙일 자리를 잃은 채, 허세와 거짓, 우악, 도덕의 타락, 썩은 교육이 날개를 치고 있다”라고, 이러한 그릇된 사회 현상이 동기가 되어 외솔은 우선 ‘새 도덕’을 세우기에 이른다(《민주주의와 국민 도덕》). 그리고 사회의 온갖 부정적인 현상을 고치고 참된 나라 사랑의 도리를 가르치고자 드디어 《나라 사랑의 길》(1958)을 펴내기에 이른다(사실 이 책은 8년 만에 끝을 맺었다 하니, 짓기의 시작은 1950년인 셈이다). 살피건대, 저 《조선 민족 갱생의 도》가 지난 수백 년의 잠자던

역사적 현실과 민족의 숨을 조여 오는 왜정의 억압의 현실 속에서 빈사 상태에 놓인 겨레를 되살리려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었다면, 《나라 사랑의 길》은 해방된 조국이 비민주·비애국적인 사회 정치의 현실 속에서 숨죽여 가매, 이를 되살려 놓기 위하여 가야 할 의로운 길을 외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둘은 때와 환경의 다름에서 나타난 외솔의 두 큰 사상서라 하겠다. 그러나 이 둘에는 겨레와 나라의 영원한 발전을 절규하는 외솔의 ‘나라 겨레 사랑의 사상’이 한결같이 이어 녹아 든 공통의 속뜻을 안고 있다.

《나라 사랑의 길》에서 제시한 참 개념은 무엇인가? 외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라 사랑은 겨레 사랑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나라가 위급한 특수한 경우에는,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는 최대의 희생을 하는 것이다. 외솔은 이를 “최대의 희생으로서의 나라 사랑”이라 한다. 그 밖의 경우로는, 개인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일치하는 나라 사랑의 개념이 있다고 한다. 이는 나라의 이익이 곧 개인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바뀌어 놓인 명제(역정리)는 참이 아니라고 한다. 곧 “개인의 이익은 바로 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외솔은, “나라 사랑의 최후의 진정한 대상의 초점은 나라의 이익과 권익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변함없는 행동이 나라 사랑의 행위이니, 곧 나날의 살기에서 신변의 작은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함이 국민, 동포, 겨레 사랑에 귀착하는 것, 이것이 나라 사랑이다”라고 한다(22~27쪽). 이러한 나라 사랑의 원리는 외솔의 한 삶을 통해 끊임없이 추구해 온 삶의 철학이요, 실천 사상이다.

3.2.3. 교육에서, 교육관의 실천

광복이 되자 외솔은 국민을 새로운 자주, 자유, 민주 국민으로 발전 시키고자 미리 준비된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교과서를 편찬했다. 그러

나 1960년대의 정치적 여독에서 온 잘못된 교육관과 교육의 혼란상은 외솔의 교육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비뚤어지는 것이었다. 곧 외솔은 그 필연적인 개선의 과제 앞에 선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외솔은 교육 사상의 이론서를 펴낸다(〈나라 건지는 교육〉, 1963). 이것은, 자율, 자발적인 창조 능력, 개성과 소질, 도덕, 이성 등에 호소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있는 곳이 바로 교육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본디 외솔의 교육 철학이다. 외솔은 이를 곧 실천으로 옮긴다. 가령 진학의 방법으로는 무시험 제도를 이상으로 하여(위의 책 137-144쪽) 이를 실천하고(대학에서 내신제 실시. 그러나 아쉽게도 그때 일선 교육계의 거짓된 내신으로 이 제도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교육의 마당은 교단뿐 아니라 사회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육의 마당임을 늘 실천했다.

교육에서는 사람의 생각의 논리적 짜임에 대한 교육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그 생각(사고)의 짜임의 보편적 규칙은 바로 말본의 통일 규칙이다. 여기에 외솔은 각급 학교의 말본 책 펴내기에 힘을 기울일 뿐 아니라, 기본 연구서인 《우리말본》의 집고 고침판을 이어 낸다(1955, 1961). 이즈음에서 말본의 진리 논쟁이 일어난다. 이른바 ‘말본 파동’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솔은 후학들에게 ‘진리의 원리론’을 전한다.

“진리 추구는 다수결의 대상이 아니다. 한 사람의 참 이치는 다수의 허구보다 값지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하여 만 사람이 아니라 부정해도 지구는 여전히 돈다. 코페르니쿠스 한 사람의 지동설은 참이다.”

3.2.4. 정책에서, 민주 자유민 육성의 교재 편찬, 한글로만 쓰기, 우리말 순화, 한글 기계 정보화, 말글의 세계화의 실천을 위한 배경 원리와 그 실천

외솔은 위의 각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먼저 한다. 그리고 문

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해결의 원리론을 세운다. 실천은 이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가) ‘한글로만 쓰기’의 원리론

한자 폐지 반대론자를 병리학적으로 보아(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빌어서) 한자의 중독환자로 진단한다. 이러한 중독환자의 낯은 머리에 는 늘 어리석은 반동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중독자의 치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편 중독환자의 치유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에 가까운 아픔 속에서도 아편 공급을 즉각 끊어라, 조금씩 주면서 끊는다는 것은 치유 불가능을 뜻한다. ‘서서히 끊자’는 심리는 영원한 누림의 무의식의 심리현상이다.” (《한글의 투쟁》, 1954)

나) ‘한글 가로쓰기’의 합리적 원리론

이는 주시경 선생의 ‘가로쓰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로쓰기의 제일 처음은 주시경 선생의 고등과 1회 ‘마침보람’(1913)에 보인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1914) 끝부분[夾入]에는 풀어쓰기의 보기가 나온다. 외술은 그 영향을 받아 30년 전부터 연구에 착수하고, ‘옥중 안’(함흥 감옥의 연구 안)을 거쳐, 광복된 뒤 바로 책으로 펴내 니, 이것이 《글자의 혁명》(1947)이다(이는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음). 외술은 한글 가로쓰기의 근거로 여러 가지 원리를 들었다. 다음에 중요한 것 몇 개만 밝힌다.

“해부학의 원리”: 눈알에는 좌우로 쉽게 움직이는 힘줄의 특성이 있으며, 눈의 좌우 배치로 말미암아 시각이 가로 퍼 짐으로써 시야가 넓어진다.

“심리의 착각의 원리”: 같은 길이도 가로보다 세로가 7분의1 더 길어 보인다.

“사람의 팔꿈치의 움직임의 원리”: 운동 범위는 상하보다 좌우가 수 배 넓다.

위의 (가), (나)는 거리의 가로 문화 형성, 한글의 정보 기계화론, 나아가서 한글 세대 형성과 한글 세계화와 상관성을 이룬다. 특히 한글의 정보 기계화는 이 상관성을 생성함에 더욱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힘의 작용은 외솔이 삼고 있는 이상이기도 하다. 외솔의 한글의 기계화의 이상은 다른 분야와의 녹아 합하는(융합성) 과정을 통하여 상승적 열매로 거두게 된다. 일찍이 연구한 ‘한글 당·홀소리가 쓰이는 변수’(《연희전문학교 문과 연구집》1, 1930)는 《글자의 혁명》(1947)과도 연계되고, 이것이 스스로의 한글 기계화 연구소의 운용으로 나타나며, 공병우 님의 기계론과 눈의 시각 확산과의 녹아 합침의 이론으로 나아가 공병우 님의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기계 정보화의 길을 여는 타자기 발명으로 나타난다(글쓴이의 ‘외솔 최현배 선생과 공병우 선생’, 《한글 새소식》 2012년 3월 호를 볼 것). 오늘날 ‘소리 반응 글자’, ‘소리 올림도 글자’들도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정보 기계화의 발전도 모두 이러한 융합 연구 과정을 거쳐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우리말 순화의 원리론(말다듬기, 말짓기 이론)—합리주의 철학관과 창조주의 언어관

말의 순화란 말을 깨끗하게 하기, 곧 ‘말다듬기’(말짓기)이다. 500여 년의 사대적 한자 문화와, 36년 동안의 식민 문화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의 고유한 정신문화는 헐벗은 빈칸의 현상 그대로였다. 이 고유 문화의 빈칸 메우기의 기본적 작업이 우리말 순화 곧 말다듬기이다. 말은 사람의 이성의 발전과 문화 발전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헐벗은 말을

그냥 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말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손을 대는 문제는 언어관의 대립을 불러온다.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 ‘말의 힘’론을 바탕으로 한 ‘창조주의 언어관’이고,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자연생성주의 언어관’이다.

외솔은, 말글은 말의 힘이 올바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손질할 수 있다는 창조주의 언어관(주시경, 흠볼트 등과 같이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 능력과 합리주의를 긍정)을 세운다.

“사람은 원래 본뜨는 기계가 아니요, 자유스러이 창조하는 정신을 가진 이이다.”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1951:81)

“말씨는 근본 개인의 자유스러운 애지음(창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다시 사회의 무리 떼의 실제스런 의지스런 부닥질(연마)로 말미암아 피어나는(발달하는) 것이다.” (위의 책:93~95)

“겨레 문화 창조의 역량은 그 겨레의 생기의 강약, 정치적 흥망과, 사회적 자유의 풍만함과 미약함에 비례함은 일반 공리이다.” (위의 책:98~99)

이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창조의 능력(competence)을 가진 존재로 보는 ‘합리주의 인간관’과 ‘창조주의 언어관’이라 하겠다. 외솔은 이러한 인간관과 언어관 아래, 없어진 고유어를 도로 찾아 깨끗하게 하기, 어려운 말이나 학술 용어 순화하기, 들은말을 중간 세계에서의 걸러내기, 새로운 사리나 사물에 대한 새말 만들기 등을 실천한다(위의 책). 이는 자연생성주의 언어관—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득권 보수주의와, 정신적 예속 근성과, 사람의 힘(인위적)으로 일삼아 손대기는 불가하다는 이기주의를 깔고 있는 언어관—과의 대결 구도를 이룬다. 외솔은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은 사회심리학적 필연 현상으로 치부하고 무

시한다. 그러나 정론에 대한 낯은 머리의 반동이 정도를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치밀한 논리의 힘(저서나 논문)으로 이를 설득한다.

외술의 말 만들기(말짓기, 말의 순화) 원리로는, 다음과 같은 ‘굽어 자란 나무의 곧추기 방법’인 대담성에 순응하는 자연법칙과 평범한 진리를 제시한다.

“굽어 자란 나무를 곧추는 방법은 반대편으로 180도 돌려놓는다.”
(자연법칙에 순응)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것이지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의 위대성)

외술은 이러한 대담한 실천과 진리의 평범성의 보기로 볼프(Chr. Wolff)를 든다. “서양 사회에서 중세기 이래 라틴 말이 아니고는 학문도 종교도 할 수 없다고 믿어 왔다. 18세기의 독일 철학자, 볼프가 대학에서 독일 말로 강의하니까 모두 신기한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 철학을 어찌 독일 말로 할 수 있으랴? 예서이다. 볼프를 정신이 돈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위축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독일 말로 철학 강의를 계속했다. 그의 주장은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뒤 칸트의 독일 말로 쓴 새 비판서가 나타나기에 이른다.” (《한글의 투쟁》에서)

라) 우리 말글의 세계로의 번짐(세계화), 우리 중심 잡기와 세계 인식의 이상

창조와 진취적 기상 아래 터 잡은 외술의 겨레 나라를 보는 눈(민족국가관)과 온 누리를 보는 눈(세계관)은 분명하다. 겨레와 나라 사랑은 외술의 한 삶을 통한 으뜸 사상이다. 이 으뜸 사상은 우리를 중심 잡아 온 누리에 우리 것 퍼 번지기와 함께, 진화하는 온 누리의 인식으로 시야를 넓히려 한 외술의 정신세계이기도 하다.

“세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조선인이 되라. 조선을 구함으로써 세계를 구하라 …… 세계 진화의 기운에 참여하는 것이 조선 민족의 이상이다.” (《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서)

“우리 말글을 세계에 퍼지도록 하라.”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에서)

외솔은 일찍이 우리 말글을 세계로 퍼기 위하여 곧 실천으로 옮긴 일이 있다. 외솔이 대학원 수학 동안(1925~1926) 나라 외국어 학교에서 1년간 조선어 교수를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아마도 정식 외국 교육 기관을 통하여 우리 말글의 세계화에 이바지한 최초의 일이 아닌가 한다.

4. 맺 음

외솔의 정신세계와 그 이상의 실천은 다만 지난 때의 그침이 아니라 이제도 올제(미래)도 우리 겨레의 영원한 문화사에 참다운 본보기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석득(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 김석득(1984), 국어 순화에 대한 근원적 문제와 그 해결책, 《국어순화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석득(2000), 《외솔 최현배 학문과 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석득(2006),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 김석득(2009), 《우리말 연구사—언어관과 사조로 본 발전사》, 태학사.
- 김석득(2011), 외솔 최현배 선생의 말씀들,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 김석득(2012), 외솔 최현배 선생과 공병우 선생, 《한글 새소식》, 한글학회.
- 김석득(2012),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애와 교육 사상, 《교육광장》 4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규호(1968), 《말의 힘—언어철학—》, 제일출판사, 1968.
- 최현배(1930/1971), 《조선 민족 갱생의 도》.
- 최현배(1937/1955/1961), 《우리말본》.
- 최현배(1942), 《한글갈》.
- 최현배(1947), 《글자의 혁명》.
- 최현배(1951),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 최현배(1953), 《민주주의와 국민 도덕》.
- 최현배(1954), 《한글의 투쟁》.
- 최현배(1958), 《나라 사랑의 길》.
- Hagège(아제주), C.(2000), *Halt à la mort des langues*(죽어 가는 말을 살리기), Paris.
- 한국의 교육 사상가(하), 교원복지신보사, 1991. 12.
- L'EXPRESS(렉스프레스). 2012. 3. 28.~4. 3.
- NATIONAL GEOGRAPHIC(내셔널 지오그래픽), 2012년 7월 호.

《한글모죽보기》.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 결정문.

조선어학회 사건 고등법원 최종 판결문(1982년 부산 지검 문서보관창고에서
찾아, 동아일보 1982년 9월 6일 자, 7일 자에 이어 실은 우리말 옹검 글).